

병무청, 「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」 개최

- ‘대를 이은 나라사랑, 병역명문가’ 슬로건으로 2026년 6월 18일 시상식 개최
- 대통령 표창가문인 애국지사 김재범 가문, 박영한 가문 등 25가문 수상 영예

- 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6월 18일 시그니엘 서울(서울 송파)에서 ‘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’을 개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.
- ‘병역명문가’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.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였으며,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병역을 이행한 47,738명, 10,511가문을 선정했다.
-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, 국무총리 표창 4가문,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,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,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
 -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재범 가문은 애국지사의 후손가문이다. 3·1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여 시위행진을 벌이다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신 1대 고(故) 김재범님. 그 뜻을 이어받아 후손들도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였으며 유족연금, 퇴직금, 결혼축의금 등을 모아 3·1장학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.

- 또다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박영한 가문은 3대에 걸쳐 13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였으며, 병역이행자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관,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전히 나라사랑의 길을 걷고 있다.

- 홍소영 병무청장은 “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”이라며 “당당하고 훌륭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습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으며, 이런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.”라고 강조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배종현 (042-481-2635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최성욱 (042-481-2637) |